



보도시점 2026. 3. 19.(목) 16:00 배포 2026. 3. 19.(목) 14:00

자동차부품 · 로봇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대구에서 개최

- 미래차·로봇 등 신성장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발굴·해소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하 지원단)은 3월 19일(목),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미래차·로봇 산업의 수출 현안 청취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원스톱 수출 119 (대구) 개요 >

- ▶ 일시/장소: '26.3.19.(목) 14:00~16: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 참석자: (기관) 지원단, 국토부, 관세청, 대구시, 코트라, 중진공, 수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단공 등
(기업) 에스엘(주), 삼익THK(주), (주)구영테크, 우성파워텍(주), (주)유엔디, 농업회사법인(주)영풍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 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출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신성장 산업 엔진인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 공급망 및 탄소 규제에 대한 수출 지원, 수출 물류비 부담 지원, 현지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지원단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석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지원방안을 설명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기로 하였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에 더해 최근 미-이란 상황으로 우리 기업이 수출 판로, 물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애로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설명회 등의 정보제공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스톱 수출 · 수주지원단 수출총괄팀	책임자	팀 장 주현동 (02-6000-5783)
		담당자	사무관 연보현 (yn8823@korea.kr)